

웃음, 그 생명의 현상



유경동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얼굴, 영혼이 나타나는

갓난아이의 해맑은 웃음에서 창조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인생 질곡의 깊은 도랑을 얼굴에 새긴 팔순 노인의 웃음에선 영겁의 시간을 감지한다. 웃음이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만, 일상에선 정작 의미있는 웃음을 만들어낼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웃어도 왜 웃는지 모르는 공허한 웃음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웃음은 현상적으로 얼굴과 연관이 된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는 '익명성' 안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한 '얼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군다나 얼굴도 돈으로 뜯어고쳐 상품화된 한두 종류의 얼굴만 이상적인 얼굴로 인정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다 보니, 신앙인조차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얼굴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

‘얼굴’이란 단어의 어원(語源)은 ‘얼의 꼴’일 것이다. ‘얼(정신)’의 ‘꼴(형상)’이란 뜻의 ‘얼굴’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안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얼굴’은 본래 타고난 ‘꼴’이 있지만, ‘얼’의 가꿈에 따라서는 ‘꼴’의 변함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은 ‘얼’보다는 ‘꼴’을 바꾸는 데에 집중되고 있으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체화된 얼굴’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얼굴에 나타난 웃음, 생명의 표현

얼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적 ‘인식’의 수단이다. 얼굴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에 중개되는 얼굴은 바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을 동반하는 얼굴의 진가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칠 때’ 나타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성(relationship)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흔히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쓰는 표현 중의 하나로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얼굴을 보기 싫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징조이다. 성서에 보면 그렇게도 형, 에서의 ‘꼴’을 보기 싫어하던 야곱이 나중에 형을 보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다(창 33: 10). 그렇기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신앙으로 볼 때, 회개의 열매이며, 사랑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가 되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의 마주침에서 나타나는 '웃음'의 현상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복부의 근육에 무리가 생길 정도로 격렬하게 웃으면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한다. 참 좋은 한국적 표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뜻은 '저 무의식 밑에 깔려있던 음산한 것, 저 깊은 내면세계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깥세계로 나온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웃을 때 순간적이거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잊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한다. 그렇기에 우선 많이 웃을수록 정신건강에 좋다. 물론 웃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거나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미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웃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징조를 발견한다. 웃음이란 마치 대지의 목마름 끝에 나타난 저 먼 하늘의 한 점 구름이며, 숨을 곳 없는, 작렬하는 태양 아래의 긴 노동 후 더위를 식혀주는 산들바람이며, 기나긴 겨울, 모진 추위와 바람에 시달린 나무 끝의 새순이리라.

웃음, 경직된 사고의 해체

웃음은 심각한 문제를 '그까이꺼'라고 가볍게 보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웃음은 '이것이 원칙이야'라는 고정관념을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저 깊은 곳의 절망을 헤치고 나오는 너무나 행복한 해방을 알리는 파열음의 목소리를 동반한다.

웃음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상식'이나 '고정관념'의 해체와 연관이 되어있다. 상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유용한 지식이라면, 고정관념은 그러한 지식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이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양자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제가 되며,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소재가 된다.

웃음을 '경직된 사고'가 해체될 때 나오는 '얼굴의 현상'이라고 할 때, 성서를 대하는 우리는 엄숙하게(?) 웃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성서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

문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창 1:1),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도록 하시며(마 1:18, 눅 1:27~38),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하면 불경건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 이시다.



여기에 웃음의 비밀이 있다. 기독교인의 웃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웃음보다 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의 경직성을 깨는 신비의 충격으로 다가와 웃음이 나오게 한다.

기독교인의 웃음,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문

세상의 웃음은 찰나적인 경직성의 해체이지만, 기독교인의 웃음은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과 평안을 느낀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웃음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는 아이의 얼굴과 같다. 기독교인의 웃음은 ‘황홀’한 감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웃음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서곡과 같은 것이며, 웃음은 기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마구 웃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웃음의 여운은 성소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반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웃음이 넘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고가 유연할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짜증과 불평의 자리에 타인을 위한 빈 자리는 없다. 그러나 웃음의 자리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인정하며 한 가족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